

한 전공에 올인? 선배들에게 들어보는 대학의 다전공 제도

고1 때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학에 입학해 생각했던 전공과 달라 '멘붕'을 겪는 경우도 꽤 많다. 자신의 진로를 잘 찾아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좋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최근 대학들은 입학 시 선택했던 전공 이외에도 복수 전공이나 융합 전공, 심화 전공 등 다전공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 중이다. 다전공 제도를 졸업 요건으로 정한 대학도 여럿 있다. 대학이 학과에 대한 장벽을 낮추면서 수험생들은 특정 학과를 고집하기보다는 다전공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입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학이 운영하는 제2전공에 대해 살펴봤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도움말 중앙대학교 학사팀

대학마다 다전공 제도 운영 활발, 다전공 제도 필수인 대학도

부모 세대가 대학을 다닐 때는 복수 전공과 부전공 정도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복수 전공, 부전공 이외에도 융합 전공, 연계 전공, 학생 설계 전공, 심화 전공 등 다양한 전공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복수 전공의 의미도 대학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대학은 재학 중에 주전공 이외에 학과나 학부의 전공을 추가로 선택하지만, 고려대와 한양대는 소속 전공을 이수한 후 졸업을 유보한 채 또 하나의 전공을 연속해 이수한다.

중앙대 학사팀 관계자는 “복수 전공, 융합 전공, 연계 전공 등 다양한 다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학생이 활용한다. 복수 전공은 인문 계열 학생들이 주로 신청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경영 경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학과들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공학 계열 학생들은 본인 전공의 공부량이 많아서 복수 전공보다는 주전공과 관련 있는 연계 전공이나 융합 전공 제도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고려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린다는 민하선씨는 “고려대는 이중 전공, 융합 전공, 심화 전공 중 하나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한 학기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데 학과마다 인원 제한이 있다. 학과에 따라 학점, 자기소개서, 면접 등으로 선발하기도 한다. 인문 계열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고려해 이중 전공을 신청하는 것 같다. 로스쿨을 희망하거나 자연 계열 학생들의 경우 전공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심화 전공이나 다른 학과와 연계한 융합 전공을 신청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Q. 입학한 학과와 선택 이유는?

인문대학 역사학과로 입학했어요. 거창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취업보다는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역사학’이었기에 선택했죠. 모든 것에는 과거가 있고 그 과거가 모여 지금을 만든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멈춰 있고 정체된 것처럼 보여도 오늘날과 분리할 수 없다는 점도 흥미로웠고요. 학과에서 다양한 수업을 듣다 보면 늘 새로운 이야기뿐인 것도 참 매력 있어요.

Q. 역사학과를 전공하면서 고민됐던 부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한 고민이 커졌어요. 주변 친구들도 취업 때문에 학과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취업난에 난감해했죠. 하지만 취업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시 고교로 돌아간다면 어떤 학과를 선택하겠느냐?’고 물으면 역시 ‘역사학’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전공에 대한 후회보다는 주전공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죠.

Q. 교육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주전공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고민에 대한 돌파구였어요. 2학년 때 교환학생도 가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면서 방향도 했어요.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코로나로 인한 학교 교육의 어려움을 확인했고, 교육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5대 중점 사업 중 하나가 ‘교육’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학교 교육만이 아닌 더 광범위하게 교육학을 공부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Q. 중앙대의 복수 전공, 다전공 제도를 소개한다면?

중앙대의 다전공 과정은 복수 전공, 연계 전공, 융합 전공, 자기 설계 전공, 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MINI INTERVIEW



윤수민
중앙대 역사학과 4학년

“다시 돌아가도 역사학과 선택,
역사학과와 원원할 수 있는
교육학과 선택”

다전공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 전공에 집중할 수 있어요. 복수 전공은 주전공 이외의 전공을 병행 이수하는 과정으로 쉽지만은 않지만, 졸업 시 2개 전공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연계 전공과 융합 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 과정을 연계, 융합해 제공하는 과정이에요. 자기 설계 전공은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다전공이 아닌 직접 설계해 이수하는 제도지요. 이 중 복수 전공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인기가 있는 학과일수록 학점 및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선발해요. 학과별로 선발 인원이 한정적이기에 학점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으로 복수 전공 학과에 관한 관심과 준비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Q. 학과 선택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죠. 성적과 학교 수준, 학과 전망 등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머리가 이플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학과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취업을 고민하고 이것저것 계산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대학은 취업 준비생을 양성하기보다는 학생을 성장시키는 곳이니깐요.



박연주
숙명여대 행정학과 3학년

**“경영학 복수 전공으로
공공과 기업에 대한 관심 확장”**

Q. 입학한 학과와 선택 이유는?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하고 싶어 행정학과를 선택했어요. 사회,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를 복합적으로 배울 수 있기에 관심사가 다양한 저에게 잘 맞는 학과라고 생각했죠.

Q.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을 선택한 이유는?

대학에 입학해 학업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업으로 삼고 싶은지 생각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기획이나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행정학과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과 조직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일반 기업에서 내 꿈을 펼치려면 무엇을 배워나가야 도움이 될지 고민했어요.

경영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관심 분야인 마케팅, 유통 커리큘럼을 배울 수 있어서였죠. 주전공인 행정학과와 유사한 부분도 많고요. 행정학과가 공적인 분야만 다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공과 기업 간의 문제도 다루는 만큼 조직 전반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보거든요. 실제로 많은 행정학과 학생들이 경영학부를 복수 전공해요.

Q. 숙명여대의 다전공 제도를 소개한다면?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을 선택하거나 주전공의 심화 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 이수 학점을 맞춰야 졸업 요건이 채워져요. 전공에 따라 기준 학점과 인원 제한이 달라요. 경영학부는 직전 학기 학점이 3.5가 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학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고, 제한이 많지 않아 타 대학에 비해 비교적 쉽게 다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Q. 학생들이 다전공 제도를 많이 활용하나?

졸업 요건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선택하죠. 물론 필수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한다기보다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관심 분야가 구체화되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학과의 경우에는 연계 전공인 공공인재학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공직에 진출하고 싶거나 경제, 정치 등 행정학과 관련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주로 선택해요.

복수 전공은 주전공과 같은 학위가 나와 많이들 선택하고요. 어떤 전공 제도를 신청하든 미리 해당 전공 수업을 들어보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학과가 맞는 지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Q. 학과 선택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고교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 지금은 학과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큰 산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여러 경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조금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해서 진로를 탐색 중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폭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대학이나 학과 선택 시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다전공 제도나 학과에 대해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Q. 입학한 학과와 선택 이유는?

2020학년에 건축학과에 입학했어요. 고1 때부터 건축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재미'였죠. 제가 원하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고, 그 작품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리라 생각하니 흥미로웠어요. '내 집을 지어보자'라는 순수한 꿈을 이루기 위해 입학했죠.

Q. 전과를 결심한 이유는?

건축학과에서 1학년을 마치고, 전자전기공학부로 전과했어요. 전과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공부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건축학과와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던 저에게 설계 도면을 그리는 법을 배우고, 공학적인 부분보다는 예술적인 영역을 심화해 배우는 건축학과가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고민이 됐죠. 그러면서 공학을 다루는 전자전기공학부에 관심이 생겼어요. 형이 타 대학 전기공학대에 재학 중인데 회로설계, 전자기기 등의 전공 과목을 보며 흥미를 느꼈고, 물리학에서 전기 부분을 가장 좋아해 전과를 결정했어요. 현실적인 부분도 영향을 줬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생각했을 때 건축보다는 전자전기 계열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Q. 다전공 제도가 잘돼 있어 복수 전공을 고민하진 않았나?

5년제인 건축학과는 복수 전공을 할 수 없어요. 부전공으로 다른 학과를 공부하기에는 건축학과 수업량이 많아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자신이 없었어요. 공학 계열은 아무래도 공부량이 많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등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자신이 생각했던 학과와 다를 때, 성적에 맞춰 온 학과가 맞지 않을 때 그리고 취업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전과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든 자신에게 더 적합한 학과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

MINI INTERVIEW



박치수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2학년

“공학보다 예술성 강한 건축학과,
새롭게 흥미 느낀 전자전기로 전과”

습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Q. 전과를 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은? 전과 과정은?

전과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학점, 면접, 공인영어성적이예요. 학점은 4.25였고 면접은 물리, 수학 시험으로 치렀어요. 학기중에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노력했고,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부터 <수능특강>을 보며 물리와 수학을 고교 수준으로 공부했어요. 시험을 그리 잘 보지는 못했지만, 면접에서 표출한 제 열정과 낮지 않은 학점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학과 선택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고교 3년 동안 바라던 건축학과를 1년 다니고 전과를 한 저의 경우처럼, 생각했던 학과와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고교 때는 학과를 경험할 수 없으니 커리큘럼, 인터넷, 선배들의 이야기 등을 참고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으시면 좋겠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통 1학년 때 정해놓은 진로를 2~3학년 때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 진학을 위해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진로와 삶의 방향에 대해 고교 때 계속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